



산업 · 물류 · 유아보호까지 '걱정 뚝'

올 시장 규모 8500억원 예상... 'U-시티' 구현 기반 조성

텔레매틱스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LBS(지리정보서비스)는 도시 구석구석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돼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U-시티' 시대를 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을 안겨준다는 이유에서 차세대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모바일 분야의 경우, 그 동안 게임 위주의 오락 이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향후에는 위치정보가 주도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 | 김종을 기자(모바일타임스, people@cellular.co.kr)

위치 기반서비스로 불리는 LBS(Location Based Service)는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파악해 활용하는 서비스다.

넓은 의미로는 LBS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치를 찾고 이 위치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LBS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기지국을 이용하는 셀 방식과 위성을 활용한 GPS(Global Positioning Service)로 나뉜다.

무선 단말기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찾는 것이 GPS고 사용자 주변의 정보를 찾으러 도와주는 것이 GIS라면,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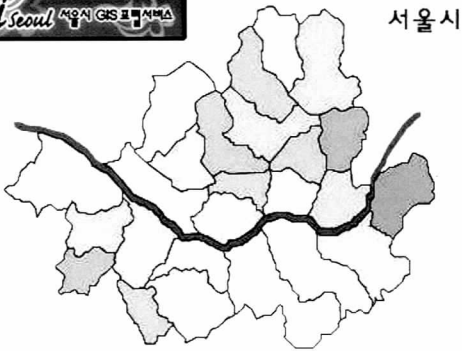
국내 LBS 관련 시장 규모

연도	시장규모
2005년	5655억원
2006년	8503억원
2007년	1조2000억원
2008년	1조7000억원

※자료 : LBS산업협의회

의 주변정보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LBS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특정 장소를 예약할 때 사용자



서울시

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상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 할인 쿠폰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할 때만 가능하며, 이는 모바일커머스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이기도 하다.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이 성장 일로를 달릴 것이란 전망은 최근 LBS산업협회가 발간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장 규모는 05년도 5655억원, 06년 850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고 내년에는 1조원 돌파 시대를 맞이하고, 2008년에는 1조7000억원 규모가 예상된다.

LBS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 시장 규모의 경우, 단말기 매출이 46%를, 서비스 및 콘텐츠 관련 매출이 41%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통부 역시 LBS 산업과 연계된 '텔레매틱스+LBS'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평가하고 있다. 정통부는 텔레매틱스 가입자를 올해 100만명까지 확보한 데 이어 오는 2010년까지 500만명 이용자 확보를 무난하게 내다보고 있다. 정통부는 또한 텔레매틱스·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로 2010년까지 4년간 서비스 생산액 2조6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통부가 말하는 '텔레매틱스+LBS'는 GPS 통신망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텔레매틱스와 LBS는 결코 따로 구분할 수 없다.

이 같은 낙관적인 시장 전망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 3사는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시장 공략을 서두르고 있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3사는 각각 500억~1000억원 정도 비용을 투입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업그레이드를 마친 상태이다.

이동전화 3사는 그동안 주력 서비스로 발전시켜 온 '친구 찾기'에 이어 올해 '텔레매틱스+LBS'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 재탐색서비스를 무료화한 데 이어 관련 서비스의 기본료도 1만8800원(LG텔레콤)~1만9000원(SK텔레콤)으로 인하했다.

이동전화 3사와 더불어 지상파LBS 서비스 사업자인 한국위치정보도 올해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이 사업자는 어린이·치매노인·자동차·애완견 등의 위치를 추적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2분기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인천소방 '모범사례'

LBS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소방방재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인천소방방재본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텔레매틱스 USN연구단이 개발한 '모바일 소방시스템'을 소방방재시스템에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PDA 등 휴대용 단말기로 사물이나 사람의 위치를 파악해 사용자에게 각종 부가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LBS 기술을 전국 처음으로 소방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위해 인천본부는 소방차 및 구급차량에 PDA를 이미 부착했고, 조만간 인천시의 260대 소방·구급차 가운데 일출동 차량 및 구조차량 55대에 PDA를 부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도 LBS를 이용한 서울시 지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지도서비스(gis.seoul.go.kr)는 2004년 7월에 시작했다.

서울시의 지리정보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시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주요정보로는 1/1000 수치지형도 기반의 위치정보를 비롯해, 주소·지번·건물명칭검색은 물론 전화번호 입력으로 주요시설물 및 생활편의시설과 도로현황 위치 정보 등이 있다.

어린이용 폰도 일단 출시

LBS의 활용은 각종 산업에 집중되겠지만 어린이 보호에도 우수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어린이용 휴대폰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작년 말 일본 NTT도코모는 어린이용 휴대폰 'FOMA SA800i'를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벨웨이브가 SK텔레콤에 어린이용 휴대폰 'BGL 100'을 공급기도 했다. **K**